



홍명보호, 멕시코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오늘 10시 운명의 키오프 첫 '조별리그 2연승' 정조준 과달라하라 입성 멕시코도 화기에애하게 최종 점검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훈련에 나섰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을 하루 앞둔 18일(이하 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에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미디어에 초반 15분만 공개된 이날 훈련에는 부상에서 회복한 배준호(스토크시티)와 김태현(가시마)을 비롯해 훈련 파트너 2명까지 선수단 28명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훈련 시작과 함께 태극전사들과 코치진은 그라운드 중앙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듯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후 피지컬 코치의 지도 아래 본격적인 워밍업에 돌입했다.

선수들은 점프, 앞뒤 달리기, 지그재그 달리기 등 다양한 코디네이션 훈련으로 가볍게 몸을 끌어올렸고,



2026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와 2차전을 앞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5일(현지시간) 훈련에 앞서 러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련장에는 평소보다 바짝 기합이 들어간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과 멕시코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10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키오프한다.

앞서 1차전에서 한국이 체코를, 멕시코가 남아공을 난란히 제압하고 승점 3을 챙겨 A조 선두권을 형성한 만큼, 이번 맞대결은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만약 한국이 멕시코를 꺾는다면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 무대 '조별리그 2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그동안 한국의 월드컵 무대 연승 기록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1-0승)에 이어 이탈리아와의 16강전(2-1 연장승)에서 잇따라 승리한 것이 유일하다.

한편 경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과달라하라에 입성한 멕시코 대표팀은 사포판 일대의 스포츠 아레나에서 최종 훈련을 진행했다.

초반 15분만 취재진에 공개된 이날 훈련에서 멕시코 대표팀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에 임했다.

40세의 베테랑 골키퍼 기에르모 오초아(리마솔)를 비롯해 2025-2026시즌 사우디 리그에서 33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훌리안 키노네스(알 카디시야), 주축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올버햄프턴) 등 선수단 전원이 훈련에 참여했다.

공개된 시간 동안 선수들은 조깅과 볼 터치 위주로 훈련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조율했다.

연합뉴스

'에플단지' 종합경기장... 인수위 '무관심' 전국 규모 대회 힘들어... 스포츠타운 재개발도 '스톱'

사실상 생활체육시설로 전략한 제주 종합경기장 대체 방안에 대해 민선 9기 인수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 오라1동에 위치한 제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1968년에 준공된 후 사용연한이 지나면서 공공체육시설물 안전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특히 분부석 맞은편 상단을 중심으로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제주시에 사실상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로 인해 전국규모의 대회는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소규모 행사도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설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운동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주경기장 등을 허물고 스포츠와 상업공간을 갖춘 스포츠타운 형태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과

다한 공사비로 내부적으로도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수위 차원에서 제주종합경기장의 대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첫날 업무보고에서 개략적으로 보고가 이뤄졌을 뿐 아직까지 별도 보고 요청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육계 내부에서는 "전국대회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종합경기장에 대해 민선 9기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체육회 차원에서도 최근 인수위를 찾아 현재 종합운동장을 안전 점검 후 보수·보강을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수영장을 외곽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사적 인수위원회는 이달 말 민선 9기 도정 방향과 실행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체육분야 제안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위영석기자

전국어올림생활체육대축전 19~21일 열전 돌입

제2회 장애인 스포츠대회 참가자 선착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축제인 제5회 전국어올림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수영·탁구·배드민턴·파크골프·좌식배구·볼링·당구·농구 등 8개 종목에 임원 53명, 선수 61명 등 총 114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메달 20개 획득을 목표로 열전을 펼친다.

제주선수단은 수영에서 10개, 탁구와 골프 배드민턴 볼링 등에서 2개 이상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은 19일 오후 12시 제주국제공항 3층에서 결단식을 갖고, 오후 1시 제주항공편을 이용해 개최지인 경상남도 김해시로 출발할 예정이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제2회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장애 장애인 스포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3인 1조 단제전으로 운영되며, 탐담 장애인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성별 구분 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등급에 따라 경기가 진행된다. 세부 종목은 >지체장애인 부문(SL-W 1·SL-W2·SL-S1·SL-S2) 10팀 >청각·신장·심장장애인 부문(SL-DB) 10팀 >발달장애인 부문(SL-DD) 10팀 등 총 30개 팀 규모다.

참가 신청은 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 위영석기자



이정후 4호 훈련 '킹' 이정후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애들랜트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MLB 애들랜트와 서스펜디드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에 3타수 1안타(1홈런)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이어진 2차전에선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태권도 간판' 강상현 아시안게임 국대 선발

18일 +80kg급 선발전 우승

세계태권도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제주 출신 강상현이 2026아시안게임 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은 -87kg급과 +87kg급이 통합돼 +80kg급으로 운영되면서 +87kg급인 강상현(울산광역시체육회)과 박찬희(삼성에스원), 박우혁(삼성에스원)의 리그전으로 치러졌다.

강상현은 18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열린 대표 최종선발전에서 1차 선발전 우승자인 박찬희와의 대

결에서 2-0으로 승리한 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80kg급 금메달리스트인 박우혁을 2-1로 꺾으면서 최종 우승했다.

강상현은 2010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68kg급에서 은메달을 따낸 장세욱에 이어 제주 출신으로는 두 번째 아시안게임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남녕고를 졸업한 강상현은 +87kg급에서 2023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세계선수권과 2025년 중국 장시 세계선수권에서 2연패를 달성한 한국 태권도의 간판선수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6월 24일

이호테우해수욕장 개장

개장기간: 2026년 6월 24일 ~ 9월 6일

임시주차장 (제주시 이호일동 374-1) 이호분마랜드

물놀이 안전명소

2014년 소방방재청 선정

온수샤워실 운영

차가운 냉수 샤워 NO!!
따뜻하고 개운한 마무리 YES!!

유아 샤워실 완비

이제 모두 수영 걱정없이 행복한 추억을 만드세요

아름다운 노을

해양레저와 말뚝대

테우

해수욕장

확 달라진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즐겁고 편안한 피서객이 되도록 저희 동민 일동은 피서객 모든 분을 내 가족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외 동민 일동

태우도 타보록, 원담 레저도 삼영 막지까지

이호테우축제

7월 31일(금) - 8월 1일(토), 2일(일) (3일간)

테우전수식
길트기
해너햇볼리레이드
일그물질(명칭이제인)

야간해수욕장 개장 7월 15일-8월 15일(오후9시까지)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무료이용
이용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주요시설물 현황 (현대식종합시설)

1층: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 동쪽 해변 계절 음식점

2층: 종합상상실(119인명 구조대, 민간안전요원, 행정봉사실, 관리사무실), 유아 샤워실

※ 안전장비: 인명구조 보트 2척, 제트스키 1척

2026 이호필터 페스티벌

IHO FILTER FESTIVAL

이호테우해수욕장

7.24 FRI

7.26 SUN

3day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관리사무실 ☎ 064)742-2501